

가축의 적 '폭염' 피해 예방엔 '기상정보시스템 활용'

농진청, 가축더위지수·사양기술정보 등 제공
더위지수, 양호부터 폐사까지 5단계로 나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14일 당부했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해당 지역의 한우·젓소·돼지·닭의 고온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축더위지수(THI)와 사양기술정보를 모바일(이동통신)과 컴퓨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동해예보의 온·습도 정보에 따라 양호·주의·경고·위험·폐사 등 5단계로 나뉘어 제공되며, 3시간 단위로 최대 3일치를 알려준다. 또 사양정보기술은 그늘막·송풍기·안개분무기 등 동부부터 비단·미네랄 증량 급여·냉수 공급 수의사 진료 등까지 축종별로 더위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관리요령을 제시해 준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축산농장 종합관리시스템 '츠크사(Chuksaron Is-gal)'에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문자 알림 신청을 하면 위험 단계가 예상되는 날 아침 휴대전화로 경보 알림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가축은 27~30도 이상 되면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고온이 지



스마트폰을 통해 가축위험지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속되면 식욕과 성장이 저하되고,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건국대와 공동으로 가축더위지수 단계별 생산성 변화를 연구한 결과 육계는 양호(THI 67) 단계 대비 위험(THI 84) 단계에서 증체량은 46%, 사료섭취량은 30% 감소했으며, 호흡수는 3배, 체온은 1.5도 증가했다. 또 젓소는 경고(THI 84~88) 단계에서 우유생산량이 10%, 사료섭취량은 11% 줄어들었고, 체표면 온도는 4%, 심박수는 22% 늘어났다. 한우는 위험(THI 88~90) 단계에서 증체량이 45%, 사료섭취량은 30% 떨어졌고, 심박수는 28% 올라갔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전례 없는 31.5일간의 폭염으로 가축 907만8,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름철에는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줄 축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젓소를 키우는 축사에 송풍기를 설치했을 때 사료섭취량 0.9kg 증가, 산유량 15% 증가, 분당 호흡수가 13.8회 감소하는 등 젓소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풍기 구입에 따른 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약 10% 정도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었다.

또 몸 전체가 기털로 덮여 있고 땀샘이 발달되지 않아 고온에 특히 취약한 닭의 경우, 개방 계사의 한쪽 끝에 48인치 환기팬 4개를 설치·가동하면 터널식 환기를 통해 체감온도를 3.2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터널식 환기를 하면 여름철 주간폐사율이 0.15%로 환기를 하지 않는 개방 계사의 주간폐사율 0.39%에 비해 61% 낮출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남건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여름철 가축 관리에 무엇보다 가축이 고온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가축더위지수를 알고 이에 맞춰 철저히 대비한다면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14일 제1호 마을자치연금(익산 성당포구마을) 준공식에 참석해 마을자치연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마을자치연금' 본격화

국민연금공단, 익산 1호 '성당포구 태양광' 준공식 참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4일 제1호 마을자치연금(익산 성당포구마을) 준공식에 참석해 마을자치연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자치연금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지원하는 시설수익금을 혼합한 마을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단과 익산시는 마을자치사업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이 있는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로 선정했으며, 마을 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70세 이상 어르신 28명

에게 올해 8월부터 매월 10만 원씩의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어르신 소득 소득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 민간 협력사업 마을자치연금을 고안하고 추진해왔다.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2회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 타당성 검증 후 기본모델 설계 및 연금지급방안 등을 구체화했으며,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 해당 마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공단은 더 나아가 「마을자치연금」 확산을 위해 표준 운영방안을 마련,

올해 8월경에는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과 협업체 전국 농촌마을 대상으로 마을자치연금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새마을사업에 선정된 도시마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에도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위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마을자치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서 공단의 대표 브랜드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익산 성당포구마을의 첫 출발을 계기로, 연말까지 전국 10개의 지자체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세계 신협과 함께할 것"... K-방역 모범 돋보여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세계신협 협의회
코로나19 대응위원장 1년 더 연임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자정(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신협협의회(WOCCU,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이하 워큐) 정기총회에서 코로나19 대응위원장에 1년 더 연임됐다.

코로나19 대응위원장은 팬데믹 이후 전세계 신협 조합원들의 피해회복을 돕고 세계신협의 조직화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7월 발족한 위원회다. 김윤식 회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1년간 세계 각지의 코로나 상황에 발맞춰 선제적인 방역의 모범을 보이며 방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김 회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향후 1년 더 코로나19 대응위원장을 연임하며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한국신협은 코로나19 대응위원장으로 K-방역의 모범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전국신협에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방역을 빠르게 실천하고, 피해지역이 늘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입은 서민들을 위해 모금을 진행해 2억 원을 전달했다. 이후 코로나로 강연랜드가 장기휴장에 들어가 경제 위기를 맞은 고령·사북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해 무담보·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외에서는 세계신협 코로나19 대응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주기적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자정(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신협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코로나19 대응위원장에 1년 더 연임됐다. 사진은 2019년 7월 김 회장이 바하마 나스에서 열린 세계신협협의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로 국제화심화회의를 개최해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세계신협 조합원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콜롬비아, 브라질 그리고 케냐에 방호물품을 지원하고 북미지역 한인신협과 홍콩신협연합회에 마스크 6만5000장을 지원했다. 지난 5월엔 케냐, 페루 등 6개국의 요청에 3만장의 마스크를 추가로 워큐에 위탁 기부했고,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구호물품이 필요한 전 세계신협 공동체에 마스크를 계속 기부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대응위원장으로 김 회장은 코로나 위기극복에 대해 세계신협 대표들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언택트(Untact) 시대의 필수 요건인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는 국가들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Webinar, 이하 웨비나)를 15회 개최했다. 특히 지난 2월과 5월에는 한국신협의 통합전자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공유해 비대면으로 조합원을 돕는 금융 서비스 인프라에 관한 신협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의 '행성 어부' 마케팅 전략을 통해 코로나 시대의 달린인 일상을 알리고 이를 이용한 한국신협의 홍보전략을 소개하여 전세계 온라인 참여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었다.

김 회장의 코로나 대응위원장 연임은 세계신협 내 유일한 아시아 이사국으로서, 혼란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덕분이다. 코로나19 시대 세계신협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장의 공로를 이미 인정받은 만큼, 백신 접종의 본격화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현재의 상황엔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한국신협의 세계신협에서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식 회장은 "이번 연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써 온 한국신협 임직원들과 조합원 덕분"이라며 "코로나의 종식으로 다시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신협운동의 정신으로 전세계 신협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미주 노선 임시선박에 농수산물 긴급 수요 화물 배정

농식품부-해수부, 17일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내 농수산물 식품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적선사 HMM이 운항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물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하고, 해당 선박이 오는 17일 첫 출항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 농수산물 수출액은 54억4000만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증가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농수산물 수출 증가세를 확실히 견인하고, 수출기업이 지닌 선박(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의 지정(공인) 확보의 어려움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선사 HMM이 투입 중인 미주 서안 노선 선박에 매월 285TEU(농식품 200TEU, 수산물 85TEU)의 전용 선복을 확보해 농수산물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조생종 배를 비롯해 김치, 김, 어묵 등 농수산물 수출 물류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항차 모집 결과, 김치·버섯·즉석밥 등 농수산물 16TEU와 김·어묵·소금 등 수산물 14TEU가 신청·접수됐다. 또한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와 국적선사 HMM(대표이사 배재훈)은 수출 농수산물 해상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MM은 하반기에 운영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물 전용 선복을 확보해 우선 제공하고, aT는 해당 물량의 신청·접수 등 운영·관리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출 농수산물의 긴급화물 수요가 있는 기업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or.kr) 누리집을 통해 선박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중소기업과 소량 화주의 비중이 높은 수산식품의 경우 8월부터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농촌으로가는 버스 '행복' 신고

전북농협-광활농협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무상 돌보기 제공 등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광활농협(조합장 신광식)은 14일 광활농협 2층 회의실에서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과 무상 돌보기 제공을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준배 김제시장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김태근 농협김제시지부장, 신광식 광활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농업인 행복버스는 마을별로 20~30명씩 나눠서 입장에 발열체크와 손소독 후 입장,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인 행복버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농촌복지사업에 온 힘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공동 열체크와 손소독 후 입장,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인 행복버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농촌복지사업에 온 힘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6월 전북내 취업자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 확산 우려 속에도 전북의 취업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6월 전라북도 고용률은 62.8%로 전년 같은 달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9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4,000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54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000명(1.5%), 여성은 43만7,000명으로 2만6천 명(6.2%)이 각각 늘었다.

산업별 취업자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2만4,000명(16.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3천 명(9.3%),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4,000명(5.3%)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은 9,000명(-7.3%), 농림업은 1만 3,000 명(-6.0%), 건설업은 3천 명(-4.1%) 각각 감소했다.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월보다 0.5%p 하락했고, 실업자는 2만2천 명으로 4천 명 줄었다. 도내 경제활동 인구는 9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명(3.1%) 증가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4.2%로 1.9%포인트 상승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상의, 퇴직연금 실무강좌 실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갑성)는 14일 상의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체 대표 및 노무관련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퇴직에 따른 노무와 퇴직연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세무사 겸 노무사인 김

경하 나토안세무노무컨설팅 대표가 ▲근로관계 종료 ▲해고에 따른 리스크 관리 ▲법정 퇴직금계산 ▲퇴직연금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등 퇴직에 따른 주요사항을 주제로 진행했다. 교육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대

면교육은 50명 이내의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동시에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100여명의 기업체 담당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윤갑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 강사를 초청한 만큼 관련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